4월부터 일반인 백신 접종 시작…75세 이상 화이자 맞는다

광주·전남, 사전절차 진행…화이자 1차 접종자, 24일부터 2차 접종

특수직 종사자, 유·초·중등 보건교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광주·전남 등 전국에서 다음 달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 대상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일제히 시작된다. 코로나 19 치료전담병원 의료진에 대한 2차 접종도 이달 하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4월 1일부터 만 75세(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8만6342명과 특수직 종사자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접종을 시작한다. 75세 이상 고령자는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또 24일부터는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조선대병원 의성관)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시작한다. 광주지역 화이자백신 1차 접종은 지난 3일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시설 등의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남에서도 내달 1일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75세 이상 도민, 노인시설(양로원 등) 입소자,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등 세 부류에 걸쳐 모두 26만여명이 대상자로 분류됐다. 75세 이상 접종 대상 도민은 21만7000여명 수준이다. 전남도는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대상자 접종 동의를 받는 등 접종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남지역 75세 이상 주민이 접종할 백신은 광주와 마찬가지로 모두 화이자 백신이다. 화이자 백신 특성상 운반과 보관이 어려워 사전에 체육관 등에 설치된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여수와 순천, 목포 등 3곳에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우선 설치해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늦어도 4월 15일까지 나주, 담양, 고흥, 화순, 장흥, 해남, 영광 등 7곳에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백신 수급 등 상황을 고려해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양로원 등 노인시설 입소자 등 접종 대상자는 도내 4만5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역시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대상 백신과 접종 장소는 모두 75세 이상 주민과 같은 화이자 백신, 지역 접종예방센터다.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역시 4월 첫째 주 접종에 들어간다.

도내 대상자는 모두 2525명으로 파악됐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 인력 322명도 도내 4월 첫째 주 접종 대상자로 분류됐다. 1차 접종을 마친 전남 도내 코로나 19 전담치료병원 의료진의 경우 이달 말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부, 도시지역 접종방침 이르면 이번주 발표

섬지역 고령자에 백신 선택권 부여 검토 논의

이르면 이번 주 정부가 도서지역 코로나 19 백신 접종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5세 이상 도서지역 고령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75세 이상 고령자 22만명에게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다음 주부터 백신이 운송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한다. 화이자 백신은 운반과 보관이 어려워 체육관 등에 설치된 지역별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뤄진다.

4월 1일부터 목포·여수·순천에 설치된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하고, 백신 수급 상황을 보면서 접종센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도내 도서지역 75세 이상 고령자 9000여명에 대해서는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 화이자 백신이 배정됐지만, 아스트라제네카(AZ)로 변경하는 방안을 전남도는 정부와 협의 중이었다.

섬 지역 고령자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육지에 설치된 지역 예방접종센터로 와서 접종을 받고 이상 반응 여부를 살피려면 1박 2일이 소요되는데, 체재비 등 비용 부담과 더불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도서지역 주민들이 AZ 백신 이상 반응 사례를 다룬 보도를 언급하면서 "멀더라도 화이자를 맞겠다"는 주장을 내놓자, 아예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민의 입장에서 접종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중 정부에서 도서지역 코로나 19 접종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든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신진작가 등용 확대…예술계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 분야 특별주간'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지원대책 마련

이용섭 광주시장이 2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사)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를 방문해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 등 10개 문화예술협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계 지원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2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극복 특별주간'의 두 번째로 22일부터 26일까지를 '문화예술 분야 특별주간'을 지정하고, 첫 일정으로 (사)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를 방문했다.

1987년 창립한 (사)한국예총 광주시연합회는 문학, 연극, 무용, 국악, 미술, 영화, 연예, 건축가, 음악, 사진 등 문화예술분야 10개 단체 연합회로, 2만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예총회관을 방문해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을 비롯한 10개 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계의 고충을 청취했으며, 구체적인 대책 등도 논의했다.

협회장들은 문화예술 통합공모 개선, 예술의거리 전통 담장 쌓기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문화예술계 산학협력 기회 확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 방안 마련, 광주 패밀리영화제 운영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조만간 진행될 정부 4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지원 제외 단체에 대해선 추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공모 등을 통해 신진작가들이 새롭게 등용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광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3일 영화인과 영상간담회, 24일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방문 및 지역 예술인과 국악상설공연 관람, 25일 문화예술미래위원회 전체회의,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 및 광주문화재단 간담회,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소속단체 대표 간담회, 무등산 주변 미술관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미얀마 군부 언론탄압 규탄…민주화 시위 응원"

한국기자협회 성명 발표

한국기자협회는 22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고 미얀마 시민의 불복종 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미얀마 당국이 민주화 시위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언론사 5곳을 강제 폐쇄하고, 독립 언론 매체의 기자 10명을 고소하고 12명을 재판 없이 구금했다며 "정당성 없는 군부의 언론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민주화 시위를 보도하는 국내외 언론도 유혈 진압 규탄과 연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전문직 기자협회는 현지에서 취재하다 체포된 기자들을 석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칼 앞에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게 한다"며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오월광주에서 독일 기자 힌츠페터와 같은 다른 나라 방송, 언론사 기자들의 목숨을 건 취재와 보도가 그 참상을 알렸다'며 언론인들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기자협회는 "우리는 미얀마가 쿠데타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시민들의 항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국문과 영문으로 마련됐으며, 성명서 전문은 기자협회 홈페이지(journalist.or.kr)에서 볼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운천저수지 벚꽃, 멀리서 보세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내년까지 보행자 출입 제한

상춘객들이 즐겨 찾는 광주 운천저수지 벚꽃을 내년까지 가까이서 볼 수 없게 됐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해당 구간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까지 운천 저수지의 보행자 출입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노선은 운천 저수지를 관통하게 돼 현장에서는 공사용 가설 도로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저수지 중앙의 벚나무 군락을 이루는 섬과 공사 구역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신 저수지 주변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우회 연결 구역을 만들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유촌동 차량 기지에서 광주역 뒤편까지 총 17㎞ 구간에서 이뤄진다. 2019년 9월 착공해 2023년 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16%의 공정률을 보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투자 경기·수도권 고수익 보장
20년경력. 010-3605-5000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통로 5층 승강기 有,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통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답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즙,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답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홈플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산행안내
3월28일(일)
▲광주kj산악회 3월28일(일) 경기 의왕, 한남정맥&백운산, 광교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69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